

프로폴리스의 위력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을 다스린다)

- 위염, 암, 류마티스, 요통, 생리통, 간경화등 -

- 지난호 이어서 -

두리원 대표 김 해 용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3. 기적, 신비의 표현은 과장 아니다

책 표지에 기적, 신비, 경이적인 물질 등으로 표현한 책들을 여러권 갖고 있다보니 책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생겼다. 물건을 구입해 보면 물건 자체보다도 겉포장이 너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것도 책의 표지와 같다고 생각하니 신비 기적이라고 한 책들은 도리어 경시하는 편이었다. 미국의 칼슨 웨이드(Calson Wade)가 쓴 책이 84년도에 번역판이 나왔다. 책 표지에 기적의 치료약 프로폴리스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이 프로폴리스를 남에게 주면 서도 이 책도 과장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86년도 박광수(朴廣守 : 봉생한의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원장께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프로폴리스 연고와 잇몸 치료약을 사용해 보니 정말 좋던데 김선생이 좀 만들어 줄 수 없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여기에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20년간 모아 두었던 양봉계(養蜂界 : 동아양봉원발행)를 뒤지며 프로폴리스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양봉서적과 봉산물(蜂産物 : 벌이 생산한 물질)에 대한 외국 문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광주의 최대봉(양봉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중)장로님께 부탁하여 일본과 프랑스 학술지에 발표된 다수의 논문과 루마니아에서 출간된 최초의 프로폴리스 책(1978년도 출판)을 복사해 주는 호의까지 베풀어주었다. 여러권의 프로폴리스 책들을 접하는 가운데 과장보다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 프로폴리스의 상반된 주장의 대조표

여러 책 저자들의 주장	필자의 주장
1. 프로폴리스는 벌꿀에서 생산된 식품이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에서 생산된 약에 가까운 물질이다.
2. 부작용은 없다.	경한 부작용 있다.
3. 효소에 의한 강한 작용이 있다.	효소에 의한 작용은 미약하다.
4. 세균에 강하다.	바이러스에 강하다.
5. 지혈작용을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식품이라고 하면 5대 영양소 중에 칼로리(Kcal)를 낼 수 있는 단백질이나 당질, 지방이 함유되어 변질될 수 있다. 수분의 함량이 적어서 일시적 변질은 없더라도 습도가 많은 여름이면 자체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연히 부패된다. 프로폴리스는 10년이 지나도 부패되지 않고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벌들이 먹기 위해서 갖고 온 물질이면 여기에는 5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이다. 그리고 벌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갖고 온 물질이면 이것은 식품이 아니고, 약에 가까운 물질이다. 판매할 때는 벌에서 생산된 식품이라고 한다. 약이라고 하였다가는 약사법에 저촉된다. 판매할 때는 식품(식품 공정에 건강보조식품으로 허가가 나왔음)이라고 해도, 속으로는 약에 가까운 물질이라고 되내인다. 갈릴레이가 법정에서는 천지가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했지만, 내려오면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되내이는 것과 같은 입장이다. 벌들이 다리에 묻혀온 진액을 입으로 뜯어낼 때 타액이 섞이므로 효소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장에서 추출되는 과정에서 효소의 위력은 상실된다. 고체로 되어 있을 때 효소의 활성을 보고, 프로폴리스에는 강한 효소의 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로폴리스의 효력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에서 나타난다. 프로폴리스가 세균에 강하면 중이염이나, 임질, 화농성 질환이나 여성 대하증에도 잘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데는 효과가 미미하고, 바이리우스 간염, 유행성 감기, 알레르기 비염, 이러한 질환에는 효과가 뛰어나다. 지혈이 잘될 수 있는 비타민 K나 미미한 성분을 하나 찾아내어 그 성분을 부각시켜 지혈이 잘 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혈작용 보다는 혈액순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리가 있는 분에게는 생리기간에 프로폴리스를 먹지 말라고 한다. 이런 강한 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에 부작용이 없다면 도리어 이상하다. 효력에 비하여 그 반응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폴리스는 책의 내용들보다도 효과가 더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금세기 최후의 생약”이라고 한 일본 의학자의 글이나 “2000년대 각광 받을 물질(필자)”이라고 한 필자의 글도 과장은 아니다. 과장으로 여겨지는 기적이나 신비라고 한 책의 표지도 프로폴리스의 효력을 알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4. 프로폴리스는 2000년대에 각광받을 물질

양봉인들이 벌통을 내검하다 보면 손에 끈적끈적한 봉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가벼운 불평들을 하게 된다. 내검 시 손에 묻은 것을 지우려고 하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씻을 때 비누보다는 소주가 낫고, 소주보다는 알콜이 잘 지워진다. 양봉인들에게 귀찮게 여겨졌던 프로폴리스가 서서히 각광을 받고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양봉계』가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필자는 60년도 중반부터 양봉을 한 사



람이고 80년도에 들어와서는 봉산물과 자연요법을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 벌통에 병이 없는 것은 프로폴리스 때문.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은 신경통이나 염증성이 있는 기관지에 오래 사용해왔다. 벌들이 이것을 갖고 오는 이유는 벌통의 틈이나 개포(벌통 안에 덮는 보자기)의 공기유통을 막고 그들의 공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양봉 초기에 생각해왔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뒤에는 벌들이 병을 잘 앓지 않는 것은 야생(野生)인 원인도 있지만, 프로폴리스로 소방(巢房)을 소독하고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와 벌통 안에서 죽었을 때는 프로폴리스로 도포 하여 병균의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항생 성분이 있어서 인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먹어보기도 하였다. 봉장에서 설사를 해도 약이 없을 때는 프로폴리스를 몇 번 먹으면 쉽게 낫는 경험도 얻었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친구에게 시험삼아 주어보기도 했지만, 확실한 성분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줄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인체에 적용될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 수거한 것을 10여년간 버리지 않고 모아왔고, 7~8년 전에 프로폴리스의 성분이 알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분표나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폴리스의 진가는 높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인간이 자연을 배척하다가도 다시 자연에 귀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합성 약물이 나왔을 때도 그것이 완전한 약으로 여겼지만, 인간에게 주는 부작용과 한가지를 좋게 하면 다른 한가지를 나쁘게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체득하고부터는 외국이나 우리 나라할 것 없이 합성된 약제보다 자연물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해도 효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한 것 이상의 효력이 나타나면 그 진가는 더욱 높아진다. 필자는 국내에서 출간된 건강서적은 거의 탐독했을 정도이고, 필자가 갖고 있는 건강 전문서적만도 500권이 넘는다. 이 책들 가운데 책 내용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는 건강법이나 상품, 약제, 식품은 거의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만은 필자가 읽은 몇 권의 프로폴리스 책보다 더 뛰어난 반응(국내산 프로폴리스에 한해서)들이 있었다. 프로폴리스의 주작용은 소염, 항균, 혈액순환 작용이다. 소염과 항균작용은 염증질환에 적용된다. 염증질환으로는 위염, 위궤양, 축농증, 기관지염, 장염, 십이지장염, 전립선염 등이 있다. 혈액 순환이 잘 되지 못해서 오는 질병으로는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바이러스에서 오는 병으로는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자가면역 이상과 결핍에서 오는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암, 알레르기 등이 있다. 고칼로리에 함유된 지방과 미량 영양소의 부족으로 오는 병으로는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병은 세포에 활력이 없어 생기는 병들이다. 세포에

활력이 없다는 것은 세포에 산소공급이 덜 된다는 것이고, 산소공급이 안된다는 것은 혈액 순환이 안된다는 것이다. 혈액 순환이 잘 안되는 것은 혈액속에 산성물질인 요산(尿酸), 젖산(乳酸), 탄산, 케톤산 물질이 많다는 것이다. 항균, 소염, 혈액순환까지 잘 하게 되면 위에 열거한 모든 질환에 해당된다. 프로폴리스는 이 모든 질환에 다 적용될 수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립선염은 책의 내용보다는 다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 병들은 현대 의학으로는 잘 못 고치는 난치병이지만, 체질에 따라 호전반응들이 나타난다. 브라질산 프로폴리스가 이 계통에도 뛰어난 반응이 있는지 필자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식견으로는 국내산보다 더 좋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병, 기관지염,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 같은데는 뛰어난 반응들이 있고, 위장병에는 특효라는 말을 붙여도 과장을 정도다. 아무리 심한 위장병도 4개월이 넘지 않고 낫는다. 오OO(통신공사 부산본부에 근무)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위장병으로 고생하였는데 「꿀 프로-킹」(꿀, 꽃가루 혼합) 몇 개월 복용하여 완치된 분이다. 위장병은 20~30년만에 완치된 분들도 많다.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에도 2개월만 복용하면 호전반응이 나타난다. 기관지염은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저항력을 길러 주는 방법을 병행시키면 수개월만에 낫는다. 알레르기 가운데도 비염알레르기가 가장 빨랐고, 축농증도 3~4개월이면 낫는 경험을 얻었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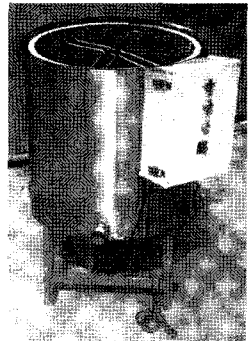
소비 전환식 자동 채밀기

1. 모델 및 가격

모델명	수량 및 기능	가격(원)
CBAM-8	소비 8매 수동 및 자동	1,800,000
CBAM-6	소비 6매 수동 및 자동	1,500,000

2. 주요기능

- 1) 채밀시간 및 회전 속도 조절
- 2) 페달버튼 하나로 정,역 회전 및 자동 멈춤
- 3) D.C 12V, A.C 220V겸용으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자동차 배터리에 연결 작동, 현장에서 직접 채밀 할 수 있음.
- 4) 꿀이 소강대에 묻지않아 산량 증가
- 5) 인건비 절감



충청 자동 기계

충북 청주시 북대동 (대표 전재영, 민영성)
 전화: (043)235-1523
 H.P : 018-414-1523